

나까야서 길을 묻다 3. 유익한 것의 추구

나도 남도 이롭게 하라

저마다 자신의 견해와 관점이 옳고 진실하며 상대방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려야 할까? 이 문제는 흔히 갈등을 불러일으키지만,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 자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늘 어려운 문제다.

“칼라마들이여, 그대들은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우리의)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추측이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으로도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 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면 들어서 아는 것, 전해오는 이야기, 추측이나 사색의 결과 정도의 수준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 문헌, 스승의 권위보다 ‘유익함’이 상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전에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가 바로 유익함이라고 강조한 부분을 떠올리면, 이때의 ‘유익’은 ‘돈이 되거나 즐거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내게 이로울 것이라는 손익계산 상의 이익추구가 아닌 것이다. 나아가 ‘나에게만 이롭거나 도움이 되는 행위 및 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을 동시에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유익함’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를 의미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전도(傳道) 선언에서 잘 드



그림 · 양경수

우리의 스승이시다’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대립스님 역, <양국따라 나까야> 제1권, 466쪽)

인용한 경전 서술은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한 칼라마들에게 주는 부처님의 대답이다. 이를 보면, 판단 근거가 되는 ‘소문, 전승, 종교 텍스트, 추측, 논리, 추론, 이 유, 사색, 견해, 권위자, 스승’ 등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말로 인해 부처님 자신의 권위마저 스스로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결론은 불교의 성격과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제시된 진실 판단의 기준은 ‘유익한 것, 비난받지 않는 것,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익’이나 ‘이익’이란 말은 일상적인 의미 그대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얼핏 보기에 진실 판단의 기준을 ‘유익함’으로 설정한 수준이 너무 일상적이고 세속적이어서 불교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익함’이 진실 판단의 기준이 되면서 의미가 퇴색되는 근거의 면모를 보면 유익함의 위상은 결코 가볍지 않다. 왜냐하

러나.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두 사람이 함께 다니지 말고 ‘홀로 다닐 것(流行)’을 부처님은 권장하지 않았던가. 여기에서 말한 ‘이익(hita)’이란 말에는 이미 ‘공익(公益)’의 정신이 내재된 것이다.

불교 수행의 핵심인 계율(戒), 명상[定], 지혜[慧]를 바라문교에서 격식을 갖추어 거행하는 제사 의식보다 ‘더욱 크고 많은 이익이 있는 제사’라고 규정된 표현에서(DN. 1, pp.146-147), ‘이익/유익’의 의미가 훨씬 잘 드러나고 있다. 왜냐하면 불교 수행의 의미를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자리매김 하기 때문이다. 곧 이익과 쾌락의 추구에만 빠지기 쉬운 세속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나와 다른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길을 찾는 일이 불교 정신의 토대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수레바퀴인 것이다.

이제 ‘세 가지 공부해야 할 내용[三學]’을 이루는 계율·명상·지혜의 트로이카를 하나씩 살펴보자.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산문 밖의 禪

김개천 건축가

(국민대 조형대학 실내디자인과 교수)

화엄(華嚴)의 사상은 무한하고 끝없는 조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주고 살아갑니다. ‘화엄만다라’ 지면은 끊임 없이 연기상생하는 우리네 이야기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이번호부터 ‘화엄만다라’ 인터뷰 섹션을 세분화 합니다. 불교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가들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산문밖의 禪’과 자비니눔으로 불법을 실천하는 주인공들을 만나는 ‘그대는 자비보살’, 시대의 지남(指南)들에게 듣는 ‘리더에게 聽하다’, 함께 수행하며 살아가는 도반들과의 인연담 ‘도반의 향기’ 등으로 나눠집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만드는 화엄 세상을 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

법당의 창호를 모두 열면 법당은 사라진다(?). 그런 법당이 있다면, 그것은 곧 선정에 들어 ‘나’를 없애는 것과 같은, 언어도단의 근치일 것이다. 그런 법당이 있을까. 그런 건축이 있을까. 있다. 2000년, 담양에 지어진 정토사 무량수전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는 법당을 설계한 건축가 김개천 교수다.

최초의 화두, 건축이란 무엇인가?

“건축이란 무엇인가?” 김 교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진지한 자문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그는 그의 건축 인생에서 첫 번째 중요한 선택을 한다. 해외 유학이라는 일반적인 선택을 버리고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건축을 경험할 수 있는 해외현장으로 간다. 마치 구범의 길을 떠난 선재동자처럼, 그는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풀기 위해 세계적인 건축과 건축가들을 만나러 길을 떠난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건축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저의 처음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는 10년 남짓의 세월 동안 스스로에게서 받은 화두를 풀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지역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알래스카 등지의 외국 회사에서 세계적인 건축과 건축가들을 만나며 ‘건축이란 무엇인가’와 씨름한다. 그러던 어느 날 김 교수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에 파견 나온 이태리 감독관으로부터 진정한 화두를 받게 된다. “건축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였다. 지금까지 건축을 ‘배우기 위해’ 먼 길을 시작한 김 교수에게 그 한 마디는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보다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그야말로 ‘화두’를 들게 했다. 그리고 이태리 감독관이 덧붙인 또 하나의 말 한마디가 김 교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였다. 김 교수는 혼란스러웠다. 이태리 감독관은 김 교수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으나 김 교수 자신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개천 교수는... 국민대 조형대학 교수이며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이다. 동국대 대학원 석학과정 동양철학과 선사사를 전공하였으며, <명목의 건축> <미의 신화> <선의 건축미학에 관한 연구> 등 한국 미(美)의 조형사상과 현대건축 사상에 대한 저서와 논문들을 발표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 근정포장, APSA EXCELLENT AWARD, RED DOT DESIGN, IFI AWARD를 수상했다.

의문은 점미가경. 제대로 화두에 묶인 것이다. 건축 학도로서 당연히 가져야 했던 의문이 이제는 인간 김개천을 흐드는 중대한 의문이 된 것이다.

서른두 살 때였다. 해외현장 생활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었다. 김 교수는 어느 날, 불현 듯 자신을 끌고 다니던 의문에서 풀려난다. 가슴에서 피어오른 한 생각. “건축은 부처다.” 그리고 순간 입으로 터져 나온 노래 하나. “툭툭툭툭 탁탁.” 김개천의 건축은 “툭툭툭툭 탁탁”이었다. 화두 끝에서 들려온 소식이었다. ‘김개천 건축’의 시작이었다.

“지금까지 건축이라고 하면 재료와 재료를 잇고 쌓고 붙여서 아름다운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건축은 하나의 세계, 진리, 생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때의 일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건축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다고 할까요. 시작할 수 없었던 저의 건축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답은 선 “선을 배경으로 한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제 건축에 대한 답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문득, 한 생각이 찾아왔던 순간을 떠올리면 그 과정이 다름 아닌 화두선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건축의 답이 선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는 가야할 길이었고, 저에게 ‘건축은 깨닫는 것’이라는 문장 같은 문장이 가슴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선은 반드시 가보고 싶은 길이 되었죠.”

김 교수는 20대 초반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 신자로서의 의미도 있었지만 ‘불교’ 자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많았다. 김 교수는 공부를 위한 공부였던 20대 초반의 공부에서 벗어나 제대로 불교를 시작한다. 그는 35세의 나이로 동국대 대학원 석학과의 문을 두드린다. 그때까지만 해도 석학과는 승가의 영역이었다. 재가자가 없었던 석학이었다. 입학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끝내 그는 석학과에 입학하여 모든 과정을 통과한다.

안팎 경계 허물고 법문하는 법당 “건축 속에 담긴 선, 선을 담은 건축, 과연 선적인 건축이란 무엇인가.”

선에 대한 공부를 마친 김 교수는 ‘건축은 무엇인가’라는 화두에 이어 또 하나의 화두를 짚어지게 된다. 공부한 값이었다. 김 교수는 40대에 접어들면서 선의 건축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사찰고급연등·자동승하강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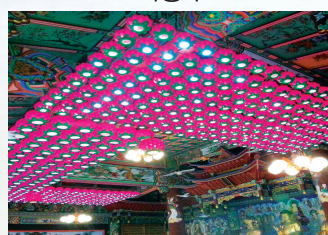
시공전



시공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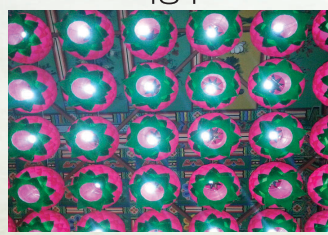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자동승하강장치 설명 |

자동승하강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고정으로 설치된 연등에 맞게 프레임 제작하여 모터에 연결해 상하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자동승하강장치의 장점 |

- 1. 발원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보입니다.
3. 법당내 구조와 면적에 비례하여 프레임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 정렬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책임 집니다.
5. 아무나 조작할수 없도록 스위치에 잠금장치가 있으며 안전합니다.

2016연등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2016 lantern special supply, listing various lantern models like 가아자비연등, 설화등, 가야 공단등, and 비닐만일등 with prices and specifications.



불교장엄용품전문 가 야 기 획

※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 구도하듯 집 짓는 선재동자

2000년, 그는 선을 배경으로 한 건축을 시도한다. 정토사 무량수전이다. 정토사 무량수전은 1980년대 이후 일어나기 시작한 현대적 건축 양식의 시도 중 하나로 불교 건축사의 중요한 사건이며, 김 교수의 역작이다.

정토사 무량수전은 네모 반듯한 콘크리트 건물이다. 사뭇히 고개를 든 지붕 추녀의 곡선도 볼 수 없으며, 때문에 그 곡선과 기둥의 조화는 더욱이 찾아볼 수 없다. 우아하게 빛을 받아낼 지붕도, 가을날 기대서고픈 배틀림기둥도 없다. 하지만 정토사 무량수전에는 140개의 창호가 배틀림기둥을 대신하고 있다. 법당의 전체 벽면이 창호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사뭇히 고개를 든 지붕 추녀의 곡선 대신 최소화 된 직선의 배열이 건물의 외양을 마감하고 있다. 그 140개의 창호와 최소한의 배열이 배틀림기둥과 추녀의 곡선을 대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단순히 디자인적인 형식이 아니라는데 있다.

법당의 한 쪽에는 산이 서있고, 또 다른 한 쪽에는 너른 언덕이 펼쳐져 있다. 법당의 140개 창호를 모두 열어젖히면 법당이 사라지고 산과 언덕이 나타난다. 법당 전체가 창호로 둘러져 있으니 그 창호를 모두 열면 법당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실존하지만 실재하지 않는, 색과 공을 넘나드는 것이다.

“외부 공간이 내부 공간으로 들어와 안과 밖의 경계가 없어지고 함께 조응하는 것이죠. 그 순간 법당 안의 대중은 산과 물, 자연, 우주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토사의 무량수전은 대승불교의 공(空)사상을 건축으로 설하고 있는 것이다. 140개의 창호를 여는 것으로 안과 밖의 경계가 무너지고, ‘절대’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색즉시공’을 문자가 아닌 건축의 일면을 통해 설하고 있다. 공이란 색을 여의고 존재할 수 없다. 다시 140개의 창호를 닫으면 법당은 법당으로 돌아온다. 공은 색인 것이다.

“안과 밖이 따로 없다는 것을 법당을 찾는 이들에게 늘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죠. 전통을 버렸을 때, 버린 의미와 새로움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 교수는 정토사 무량수전으로 2001년 한국건축가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건축상을 받았다.

김 교수는 정토사 무량수전 외에도 동국대 대각전, 만해마을 만해사, 법전사, 천안 황룡사, 목동 국제선센터 등 불교건축을 통해 자신의 건축관을 실현

하기 위한 많은 시도를 해왔다. 시대가 요구하는 건축과 불교적 안목의 건축 사이에서 늘 고민해왔다.

“지금까지 없었던 형식의 건축을 하고 싶어요. 건축으로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건축 속에 선이 있고 불교가 있는 거죠. 저는 제 건축이 ‘Less but more(적은 그러나 많은)’이길 바래요. 유와 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건축을 하고 싶어요.” 김 교수는 ‘선적인 건축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자신의 건축관을 말했다.

‘無心한 건축’과 ‘늘 흔들리는 건축’  
“건축이 선이 될 수 있는가?”

김 교수의 선적인 건축은 앞서 말한 불교건축은 물론이고, 일반 주택과 빌딩, 미술관, 종교 시설 등 다양한 건축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엔 또 하나

## ‘건축이란 무엇인가’ 첫 화두

유학대신 선택한 해외현장서

오랜 참구 끝에 들려온 한소식

“건축은 부처다. 툭툭 탁탁”

35세에 東大 대학원 선학과 입학

자신의 건축, 선에서 답 찾아

정토사 무량수전으로 실현

안주하지 않고 새 건축 고민

의 화두가 등장한다. ‘선적인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에 이어진 ‘건축이 선이 될 수 있는가?’이다. 불교적인 건축에 선이 투영되고 발현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축에서 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생각이 필요했다.

김 교수는 선이 될 수 있는 건축을 위해 ‘무심(無心)한 건축’과 ‘늘 흔들리는 건축’을 말했다. 건축이 선이 되기 위해서는 애쓰지 않는 건축, 주장하지 않는 건축, 즉 ‘무심한’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드러내고 보여주지 위한 건축이 아니라 드러내고 드러낸 소박한, 그러면서도 ‘건축’일 수 있는 건축이다.

또 하나, 건축이 선이 되기 위해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생각의 건축, 무상함에서 오는 흔들림(늘 변하는)의 건축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삼십대 초반에 지었던 일반 주택 하나를 소개했다. 블록으로만 지은 집이다. 돈을 들이지 않은 집이라고 소개했다. “사당동에 지은 집인데, 그 집을 말로 설명하라고 하면 ‘무심한 집’이라고 하고 싶어요. 애쓰지 않은 집, 주장하지 않은 집, 이에요.” 김 교수는 ‘건축이 선이 될 수 있는가’하는 의문에 답할 수 있는 건축으로 사당동 집을 말했다. 김 교수는 요즘 다시 그 집이 생각이 난다고 했다. 無자와 空자로 집을 짓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최근에 지은 집 하나를 또 소개했다. ‘늘 흔들리는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칸집’이다. 2014년에 지은 ‘한칸집’은 매스컴의 많은 조명을 받은 건축이다. 경기도 양평군 송림리에 지어진 주택이다. ‘한칸집’으로 불리는 이 집은 실질적인 넓이가 가로세로 9m이다. 내부를 전부 움직이는 미닫이문으로 달아 문을 열었을 때 한 칸으로 모이고 문을 닫았을 때 아홉 칸으로 나뉘는 구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집은 처음에는 아홉칸집이라고 이름 붙였다가 한칸집으로 바꿨다. ‘늘 흔들리는 집’이다. 고정화되어 있지 않은, 늘 무상함을 전제로 서 있는 집이다. 한칸집의 건축주 이내옥 씨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방으로 조선시대 사방방을 담은 겸소하고 작은 집을 원했다고 한다. 오래된 주변과 어긋나지 않는 집이길 바랐다. 건축주가 김개천 교수를 찾은 이유는 김 교수가 담양 정토사에 무량수전을 짓는 것을 보았던 인연 때문이었다. 김 교수는 건축주의 요구를 자기 식으로 받아들였다. “내 생각에 주변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조화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변과 닮거나 비슷한 것이 아니다. 자신만의 고유성을 갖고 생명성을 획득하면 조화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부 평면에서 그 부분을 구현했다.”고 말하는 김 교수는 “이 집이 보기에 따라서는 한 칸도 될 수 있고 백 칸도 될 수 있는 집이다.”고 덧붙였다. 건축이 선이 되는 순간이다. 선은 산문 밖에도 있었다. 김 교수는 2015년 ‘창의적 리더와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명원 건물(한옥)의 리뉴얼 작업을 했다. 또한 예술분과 강사로도 참여하며 또 다른 건축을 찾아 여전히 선재동자의 길을 가고 있다.

박도일 수필가 doi3012@daum.net



선의 건축을 구현한 담양 정토사 무량수전은 김개천 교수의 선을 배경으로 한 건축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2014년 천인에 지어진 황룡사는 현대적인 건축과 전통의 건축이 공존하는 건축이다.

## 전법일기

### 군대 안의 수행자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 그 속에 종교적 지원과 장병들의 심신의 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군종장교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구성원은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의 성직자들이다. 특히 불교 군승은 조계종단의 승적을 지니고 출가수행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군포교의 뜻을 두고 군문에 들어선 이들도다.

그래서 일가. 군 내부적으로도 호칭을 계급으로 부르지는 않고 종교별로 부른다. 그래서 유일하게 두가지 신분을 가진다.

군승들은 복무 중에 여러 가지 애로점을 지닌다. 먼저 계급이 낮은 상태에서 임관하다보니 상위 계급자에게 오해를 받는 것을 들 수 있다. 필자가 처음 군생활

기준으로 인해 머리를 조금씩 기르고 있으며 군복도 입기 때문이다. 여기에 호칭까지 ‘법사’로 불린다. ‘법사’라는 호칭이 어떤 말인가. ‘삼장법사’라는 말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법을 설하는 존재를 높여 부르는 호칭이 아닌가. 스님들 중에서도 법사스님이라고 호칭할 때의 그 ‘법사’인 것이다. 군에서 ‘군승법사’들이 하는 모습이 주로 법회를 이끌어 법문을 하고, 아이들에게 법을 전하는 역할이기에 ‘법사’라고 불려졌을 뿐이지 한번도 스님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 호칭으로 인해 불자들에게 여염집의 남자 무속인과 같이 바래봐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현재 군에서 활동하는 100여 명의 군승



그림 · 박구원

을 시작했을 때 겪던 일이다.

10여년 전 처음 배치를 받아 근무하던 곳에서의 일이었다. 열심히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이 부대들을 찾아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지휘관도 만나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남아 부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대담 한 한부가 와서 이런 말을 건넸다. “넌 처음보는데? 어디서 왔냐?”

“아, 저는 군종법사입니다.”

뜻밖의 대답에 그 간부는 “아! 그러십니까?”라고 하며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이런 경험은 그 후에도 부지기수로 겪었다. 군간부이자 종교인으로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한 부대에서는 “야! 박대위! 너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니가 하는게 뭐가있어?”라며 면전에서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군승들에게 이런 언행을 보이는 이들은 일찌감치 군복을 벗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군에서도 인성이 부족한 이들은 진급에서 누락되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이기 때문이다.

이런 군대 내 편견보다 더 속상한 일은 불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스님이예요?”라고 질문할 때다.

군승들의 겉모습은 일반적인 스님과 조금 다를 수는 있다. 군에서 요구하는 복장

법사들은 스님들이며, 늘 그 수행자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투복을 입고 방탄헬멧을 쓰고 훈련장을 누빌 때에도, 장병들과 군용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때에도 ‘내가 그래도 스님인데’라는 생각을 하며, 인욕하고 정진한다. 사찰에서 수행하고 살 때와는 달리 장병들의 간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에도, 사리사육을 위해서거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활동하는 법은 없다.

언제나 어려운 상황에서 수고롭게 군복무하는 장병들의 번뇌를 덜어주고 싶고, 국방의 역할을 하는 장교, 부사관 불자들이 조금 더 신심있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가서도록 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국군 장교라는 역할을 위한 수행자가 아닌 수행자 이기에 가까이 군복을 입고 훈련장으로 나아간다. 법명보다 속명으로 불리우는 시절도, 스님이 맞냐고 하는 원초적인 질문에도 답하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군(軍)이라는 대중 속에 뛰어난 수행자들인 것이다.



박명민 군승법사(호국청원사)

### JJUN Heating System Module

“**전**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C ~ 50°C) 난방 가능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공 대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www.jjunheating.co.kr](http://www.jjunheating.co.kr)

서울 : 010-5097-8291  
부산 : 010-2310-0404  
인천 : 010-5759-8804  
대구 : 010-9183-9729  
광명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안로 61(영화동)

### 사찰 연등 및 전선 [범용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동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고출구 12E 3구, 4구  
인저구 26E 4구, 5구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원(노원지) 진분종 연분종 택석 금색

연등규격 : 4m, 6m, 7m, 8m, 10.5m, 13m, 20m, 30m

제등행렬 용품

일지형 S형 T분리형

LED배선형 LED대리형 건선지초

▶방생, 탐방, 각종 행사용으로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